

烈行 열행

金氏籍慶州。金承益女。羅州羅鳳燦妻。

贈貞夫人。夫以風庠四年沉痾。藥

餌刀圭不委於十子。十婦衰暮之年。

親自點檢。祈寒溽暑少無懈惰。病漸

危。欲奄遭崩城。訣其子女曰。餘與

君子生同月日。則豈可不歸同月

日。手絕粒七日。雍容下從。因爲同

兆。意竟遂其志。有旌閭

해의

증정부인 열녀 경주김씨 행전

정부인께서도 경주김씨요. 김승익의 따님으로 나봉찬의 아내이시다. 돌아가신 후 정부인 작위를 받으셨다. 남편이 증풍으로 수족이 저리고 아픔이 사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병세가 더욱 고질이 되자 아내 스스로 약과 음식과 의료를 모두 수발하고 열자식과 열며느리에게 말기지 않고 함은 나이에 도 자신이 손수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날씨가 몹시 춥거나 더워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셨다. 그러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위독해져 남편의 임종이 촉박해 짐에 자녀들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「내가 남편과 같은 달 같은 날(三월九일)에 태어났는데 어찌 같은 달 같은 날에 돌아가지 않느냐」라고 천일동안 곡기를 끊고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라 돌아가셨다. 모를 남편의 묘와 합부하니 마침내 소원했던 바를 성취하시었다. 이 열녀의 행적으로 나라에서 열녀 정려를 세웠다.

추기

남편 봉찬은 열조 一七七四年 갑오 十月 二十四일에 졸하시고 아내 경주김씨도 一七七四年 갑오 十二月 二十六일에 졸하셨다. 경주김씨의 려행은 순조 一八二三年에 입수 계 명정하여 서천담에 입정려했다가 철종 一八五八年 무오 三月 十六일에 서천담 화금리 갈산 선영아래로 옮겨져 있었다. (현 갈산 정묘단역)